

KECTU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 분석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2. 15.

목차

<요약>	i
1. 서론	1
2. 자료	1
3. 기초통계	2
4. 상담유형 분석	
1) 개괄	10
2) 영역별 상담유형	1
5. 주요 세부 상담유형별 특징	
1) 노조가입(설립)	7
2) 임금체불·최저임금	2
3) 고용보험·실업급여	8
6.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상담 특징	8
7. 시사점	36

요약

본 보고서는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장 실태, 동향,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전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자료 중 2021년 3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입력된 5,791건의 상담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형태

상담형태별로 살펴보면, 전화 상담 비율이 7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1577-2260 대표 전화 상담이 2020년보다 16.3%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 비중이 48.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작년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담 비중은 비슷하고,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기계, 건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직종은 서비스·운송직과 노무직이 절반 이상(54.6%)으로 나타났다.

상위 3대 상담유형

상위 3대 상담유형은 임금(26.3%), 노동3권(16.7%), 해고·징계·인사이동(11.9%) 등으로 나타났다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이 4.9%포인트 줄어들고, 노동조합 가입·설립 등 노동3권 상담이 6.3%포인트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1순위인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동3권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3권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 노사자치를 통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제1·2순위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 해고·징계·인사이동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3순위의 경우, 정규직은 권리구제 등 절차와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이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은 4대 보험 상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열악한 비정규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에 상관없이 제1순위 상담유형은 임금으로 나타났는데, 2순위의 경우 여성은 해고·징계·인사, 남성은 노동3권 상담으로 나타났다. 여성 3순위 상담유형은 4대 보험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연령별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상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임금 상담 비중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해고·징계·인사이동, 40대와 50대는 노동3권, 60대 이상에서는 4대 보험 상담이 차지했다. 4대 보험 상담은 60대 이상(2순위)과 2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해당 연령대 노동자 노동조건이 기본적인 사회보험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 3권 상담은 주된 연령층인 40~50대(2순위)와 3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설립), 임금체불·최저임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분석

노조가입(설립)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피상담자 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8.6%로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건설업(27.6%)과 제조업(23.6%)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비중이 75.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5.8%)와 60대 이상(32.8%) 상담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 제조업(29.9%)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상담 비중이 6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명 중 1명(33.3%)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5.5%)이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상담 분석

30인 미만 사업체만 따로 떼서 규모별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24.8%, 5~9인 32.9%, 10~29인 42.3%로 10~29인 사업장의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상담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비중이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대 이상 23.9%, 40대 18.9%, 30대 15.2%, 20대 13.0%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54.0%, 비정규직 43.3%로 정규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 사업장 97.5%, 유노조 사업장 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상위 5대 상담유형은 임금(29.5%), 해고·징계·인사이동(12.3%), 권리구제 등 절차(11.7%), 노동시간·휴일·휴가(11.0%), 4대 보험(9.8%) 순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체 상담유형과 비교하면, 노동3권 상담이 상위 5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대신 권리구제 등 절차, 노동시간·휴일·휴가, 4대 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자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첫째, 2021년 상담은 2020년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피상담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노동상담 사업이 본래 취지인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 노동자 권리 및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화 상담 중 대표전화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 역시 민주노총의 상담사업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만 인터넷 상담 형태가 여전히 저조한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60대 이상 상담 비중이 50대 다음으로 높고, 주요 상담유형이 임금, 4대 보험,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넷째, 노조가입(설립) 상담을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하면, 3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사업장 전략조직화 사업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특히 10~29인 사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20대(1.3%)와 60대 이상(9.7%)의 비중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금체불·최저임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등에서 30인 미만 사업체와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작은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조유무에 따른 상담 비중은 무노조 사업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법·제도의 이행을 강제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서론¹⁾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단일한 노동상담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1만여 건 이상 상담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미조직전략조직실은 한 해 동안 축적된 노동상담 통계를 분석하여, 현장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 향후 전략조직화 및 미조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민주노총 과제 등에 대한 조직내외적인 논의를 조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장 실태, 동향,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전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본 보고서 분석자료는 민주노총이 구축한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자료 중 2021년 3월 1일 ~ 10월 31일까지 상담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 내역은 상담기관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축적된다. 상담 입력기관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소, 민주노총 법률원, 산별연맹 등이다. 위 분석 기간 동안 전체 상담 건수는 5,791건이다. 하지만 항목별로 입력률 또는 응답률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항목별 분석 대상이 되는 상담 건수도 차이가 있다. 각 항목별로 무응답자는 제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이 입력된 상담 사례만을 분석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2020년 통계는 2020년 2월 1일 ~ 10월 31일까지 상담 내역을 분석한 「코로나 시기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와 분석」에서 인용했다.

1)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민주노동연구원에 위탁한 조사 보고서임 밝힌다.

3. 기초통계

1) 상담형태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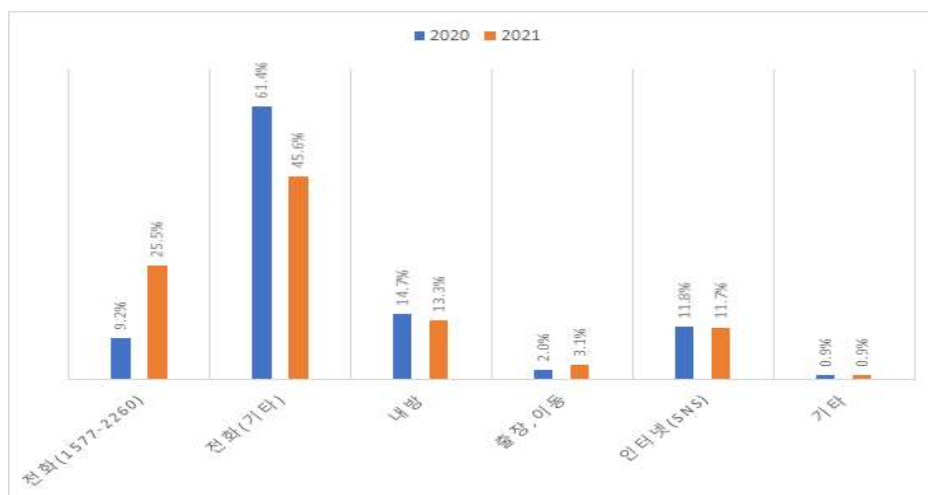
상담형태별로 살펴보면, 전화 상담 비율이 7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방(13.3%), 인터넷(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상담형태 분포

상담형태	건수	비율	
전화(1577-2260)	1474	25.5%	71.1%
전화(기타)	2640	45.6%	
내방	769	13.3%	
출장(방문,이동)	178	3.1%	
인터넷(SNS)	680	11.7%	
기타	50	0.9%	
합계	5791	100.0%	

2020년과 비교하면, 1577-2260 전화 상담이 16.3%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대신 기타 전화 상담이 15.8%포인트 줄어들었다. 다른 상담형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상담형태 비중 비교(2020년, 2021년)



2) 피상담자 성별 현황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4,446명) 중 남성 67.4%, 여성 32.6%로 나타났다.

<표 3> 피상담자 성별 현황

성	피상담자 수	비율(전체 응답자 대비)
남성	2,998	67.4%
여성	1,448	32.6%
합계	4,446	100.0%

3) 피상담자 사업장 규모별 현황

사업장 규모별 피상담자 분포는 10~29인(20.6%)과 30~99인(20.5%) 사업체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인 이상(18.5%)과 5~9인(16.0%) 사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12.1%였다. 3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48.7%이며 30인 이상이 51.3%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 피상담자 사업장 규모별 현황

사업장 규모	피상담자 수	비율(전체 응답자 대비)
5인 미만	250	12.1%
5~9인	332	16.0%
10~29인	426	20.6%
30~99인	425	20.5%
100~299인	254	12.3%
300인 이상	384	18.5%
합계	2,071	100.0%

2020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이 5.4%포인트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9.8% → 21.1%, 5~9인은 13.6% → 16.0%, 10~29인은 19.9% → 20.6%로 증가했다.

[그림 2] 피상담자 사업장 규모별 비교(2020년과 2021년)



4) 피상담자 고용형태별 현황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2,557명) 중 정규직은 48%, 비정규직은 49.6%로 비중이 거의 비슷했는데, 매우 근소하게 비정규직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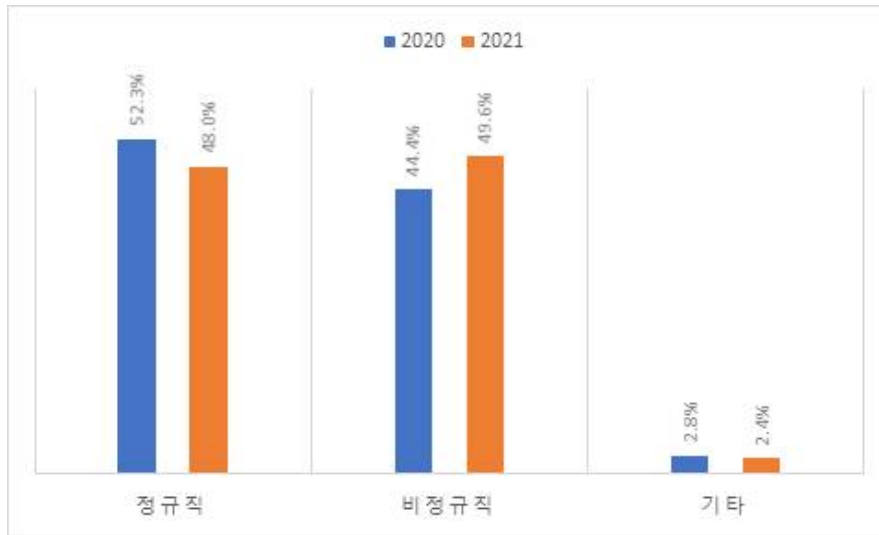
<표 6> 고용형태별 상담 현황

고용형태	피상담자 수	비율(전체 응답자 대비)
정규직	1227	48.0%
무기계약	163	6.4%
기간제	509	19.9%
단시간제	44	1.7%
파견(용역)	177	6.9%
사내하청	36	1.4%
특수고용	86	3.4%
(건설) 일용직	226	8.8%
촉탁	21	0.8%
재택	1	0.0%
가내	0	0.0%
초단시간	5	0.2%
기타	62	2.4%
합계	4,836	100%

49.6%

2020년에 비해, 정규직은 4.3%포인트 줄고, 비정규직은 5.2%포인트 늘어났다. 비정규직 중에는 기간제가 1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 일용직(8.8%) → 파견(용역)(6.9%) → 무기계약(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피상담자 고용형태별 현황 비교(2020년, 2021년)



5) 피상담자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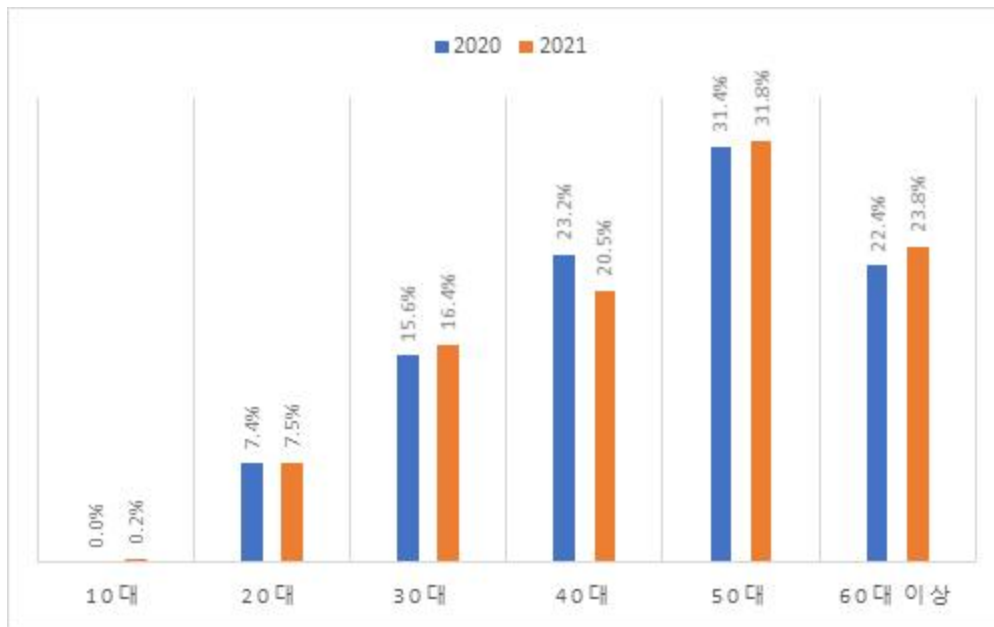
연령 전체 응답자(2,963명) 중 50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23.8%) → 40대(20.5%) → 30대(16.4%) → 20대(7.5%) → 1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별 상담 현황

연령	피상담자 수	비율(전체 응답자 대비)
10대	5	0.2%
20대	221	7.5%
30대	486	16.4%
40대	606	20.5%
50대	941	31.8%
60대 이상	704	23.8%
총계	2,963	100%

60대 이상 피상담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 노동자가 증가하고, 대부분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통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상담이 1.4%포인트, 30대 상담 역시 근소하게 0.8%포인트 증가했다. 대신 40대 상담이 2.7%포인트 감소했다.

[그림 4] 피상담자 연령대별 현황 비교(2020년, 2021년)



6)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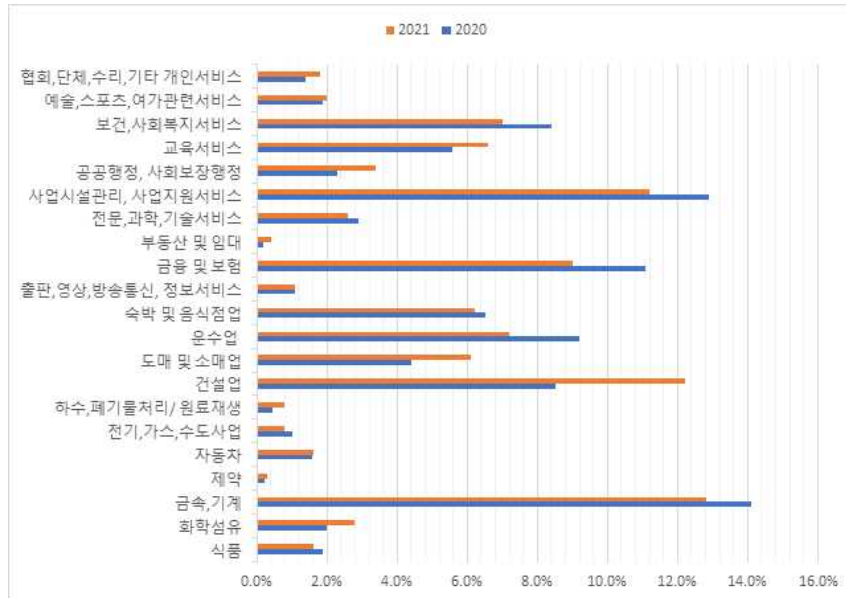
업종 전체 응답자(2,200명) 중 상위 5대 업종은 금속기계(12.8%), 건설업(12.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11.2%), 금융보험업(9.0%), 운수업(7.2%)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7.0%) → 교육서비스(6.6%) → 숙박 및 음식점업(6.2%) → 도소매업(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묶을 경우, 피상담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19.1%로 나타났다.

<표 10> 업종별 상담 현황

업종	피상담자 수	비율	
농림어업	11	0.5%	
광업	2	0.1%	
식품	36	1.6%	제조 (19.1%)
화학섬유	62	2.8%	
금속,기계	281	12.8%	
제약	6	0.3%	
자동차	35	1.6%	
전기,가스,수도사업	17	0.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17	0.8%	
건설업	269	12.2%	
도매 및 소매업	134	6.1%	
운수업	159	7.2%	
숙박 및 음식점업	136	6.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24	1.1%	
금융 및 보험	197	9.0%	
부동산 및 임대	8	0.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7	2.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247	11.2%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75	3.4%	
교육서비스	145	6.6%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54	7.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44	2.0%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	39	1.8%	
기타	45	2.0%	
합계	2,200	100%	

2020년 상담 상위 5대 업종은 금속기계(14.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12.9%), 금융·보험업(11.1%), 운수업(9.2%), 건설업(8.5%) 등이었는데, 2021년과 비교하면 순위만 바뀌었을 뿐 상담 상위 업종은 동일했다. 작년과 비교해서, 상담 비중이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화학·섬유 등이다. 다만 업종별 상담 분포는 산별·연맹의 데이터베이스(DB) 입력 현황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담 입력 건수가 높은 가맹조직은 공공운수노조(238건) → 사무금융연맹(200건) → 건설산업연맹(197건) 등의 순서이다.

[그림 5] 피상담자 업종별 현황 비교(2020년, 2021년)



7) 직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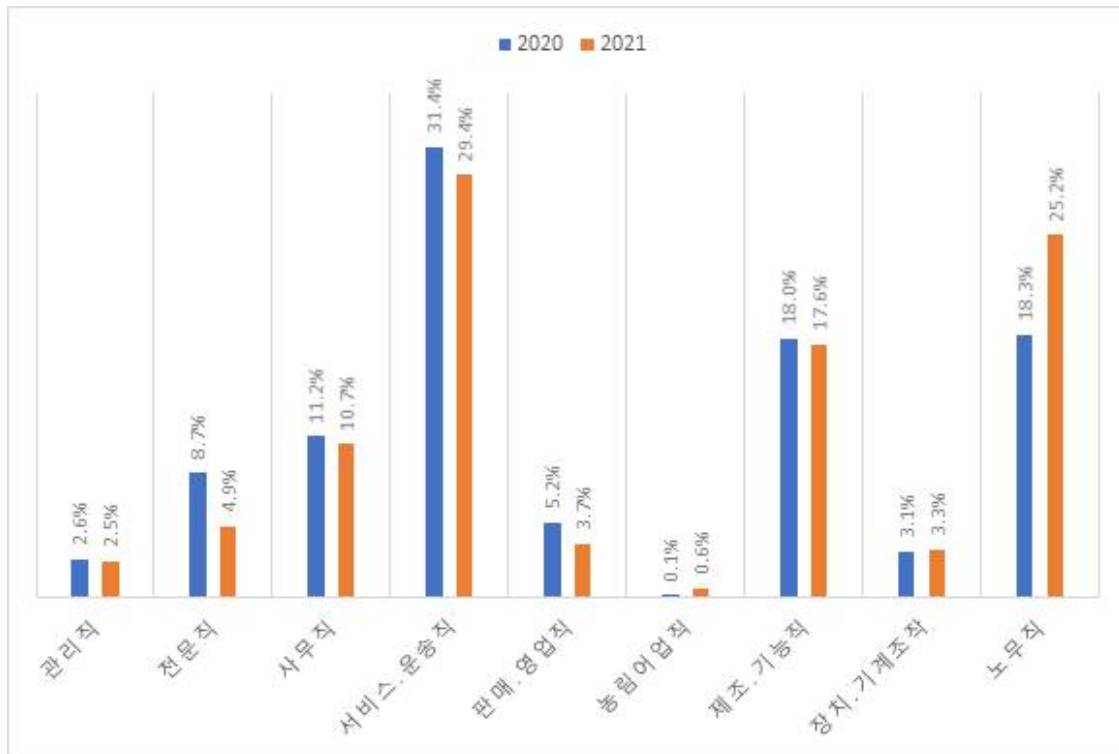
직종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035명) 중 서비스·운송직이 29.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무직(25.2%) → 제조기능직(17.6%) → 사무직(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직종별 상담 현황

직종	피상담자 수	비율(전체 응답자 대비)
관리직	50	2.5%
전문직	99	4.9%
사무직	218	10.7%
서비스·운송직	598	29.4%
판매·영업직	76	3.7%
농림어업직	12	0.6%
제조·기능직	359	17.6%
장치·기계 조작	67	3.3%
노무직	512	25.2%
기타	44	2.2%
합계	2,035	100%

2020년과 비교하면, 노무직 상담 비중이 6.9%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운송직과 판매·영업직은 각각 2.0%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피상담자 직종별 현황 비교(2020년, 2021년)



8) 노조유무별 현황

노조유무별 상담 현황은 무노조 사업장 85%, 유노조 사업장 15%로 나타났다.

<표 14> 노조유무별 상담 현황

노동조합	피상담자 수	비율(응답자 대비)
있음	297	15.0%
없음	1,682	85.0%
합계	1,979	100.0%

4. 상담유형 분석

1) 개괄

상담유형을 개괄하면, 전체 상담 건수(9,974건) 중 임금 상담이 26.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3권(16.7%) → 해고·징계·인사이동(11.9%) → 권리구제 등 절차(9.3%) → 노동시간·휴일·휴가(9.1%) → 산업재해·노동안전(7.4%) → 4대 보험(7.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노동3권, 해고·징계 등에 대한 상담 비중이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 상위 3대 상담유형은 임금(27.1%), 권리구제 등 절차(14.2%), 해고·징계·인사이동(13.6%)이었으며, 노동조합·단체교섭 등 노동3권 상담은 10.4%였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이 4.9%포인트 줄어들고, 노동조합 가입·설립 등 노동3권 상담이 6.3%포인트 늘어났다. 임금과 해고·징계 등에 대한 상담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15> 상담유형

상담유형	상담 건수		비중		
	2021년 ¹⁾	2020년 ²⁾	2021년	2020년	
임금	2,625	3,544	26.3%	27.1%	
노동시간·휴일·휴가	912	952	9.1%	7.3%	
해고·징계·인사이동	1,182	1,781	11.9%	13.6%	
근로계약취업규칙	521	662	5.2%	5.1%	
성평등	54	65	0.5%	0.5%	
산업재해·노동안전	742	543	7.4%	4.2%	
4대 보험	701	1,096	7.0%	8.4%	
노동3권	노동조합	871	645	8.7%	4.9%
	단체교섭	197	255	2.0%	2.0%
	단체협약	222	230	2.2%	1.8%
	단체행동	61	42	0.6%	0.3%
	부당노동행위	316	181	3.2%	1.4%
비정규직	134	209	1.3%	1.6%	
절차	925	1,852	9.3%	14.2%	
기타	511	1,004	5.1%	7.7%	
합계	9,974	13,061	100%	100%	

주 1) 2021년 3월 1일 ~ 10월 31일

주 2) 2020년 2월 1일 ~ 10월 31일

2) 영역별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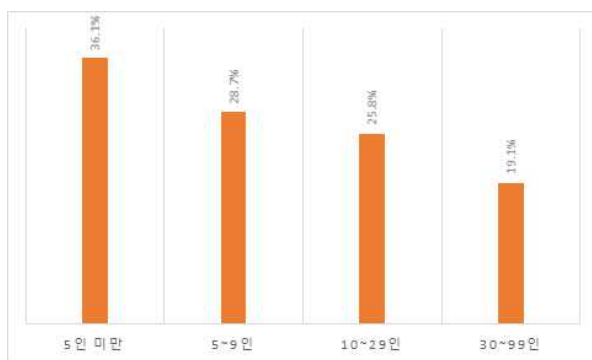
(1) 사업체 규모별 상담유형

사업체 규모별로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대체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1순위인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동3권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3권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 노사자치를 통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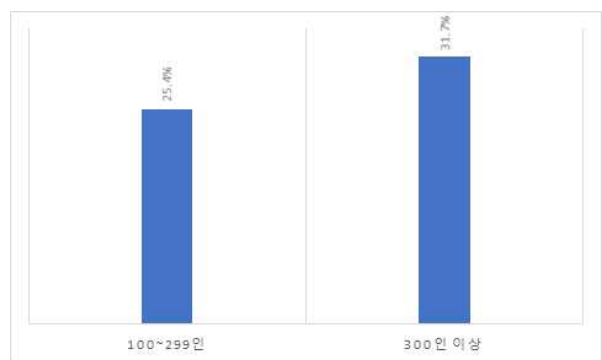
<표 16> 사업체 규모별 상위 3대 상담유형

사업체 규모	1순위	2순위	3순위
5인 미만	임금(36.1%)	4대 보험(14.2%)	해고·징계·인사이동(13.7%)
5~9인	임금(28.7%)	권리구제 등 절차(14.4%)	해고·징계·인사이동(11.8%)
10~29인	임금(25.8%)	노동시간(14.0%)	해고·징계·인사이동(12.1%)
30~99인	임금(19.1%)	노동 3권(14.4%)	해고·징계·인사이동(13.9%)
100~299인	노동3권(25.4%)	임금(18.7%)	해고·징계·인사이동(11.7%)
300인 이상	노동 3권(31.7%)	임금(13.1%)	산업재해·노동안전(9.7%)

[그림 7] 임금 1순위 사업체 규모 현황



[그림 8] 노동3권 1순위 사업체 규모 현황



둘째, 임금상담 비중은 사업체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6.1%로 매우 압도적이었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중이 점차 감소해 300인 이상 사업체

의 경우 13.1%에 불과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4대 보험 상담이 2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회보험조차 적용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해고·징계·인사이동 관련 상담은 300인 미만 사업체 상위 3대 유형에 포함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불안이 현장의 주요 현안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압도적으로 임금 상담(36.1%)이 높았고, 다음으로 4대 보험(14.2%)과 해고·징계·인사이동(13.7%) 순으로 나타났다. 대신 노동3권 상담은 3.1%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5~9인 사업체 상담유형의 특징은 5인 미만과 마찬가지로 임금 상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권리구제 등 절차에 대한 상담 비중이 2순위로 나타났다. 5인 미만에서 2순위를 차지했던 4대 보험 상담 비중이 5~9인 사업체에서는 8.0%로 중간 순위로 하락했고, 노동 3권 상담 비중(3.3%) 역시 5인 미만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2) 업종별 상담유형

업종별로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금속·기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는 임금 상담이 1순위로 나타났는데,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노동조합 설립·가입 등을 포함한 노동3권 상담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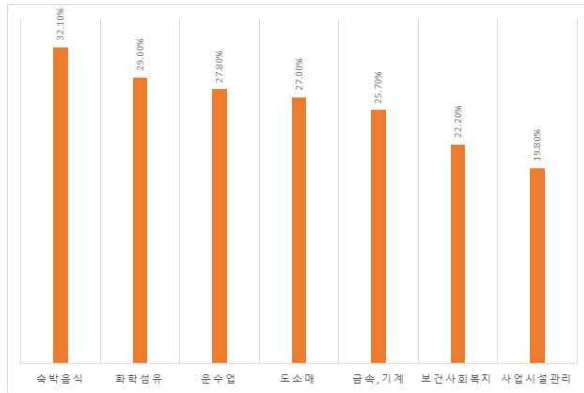
둘째, 산업재해·노동안전은 금속·기계, 건설,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상위 3대 상담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징계 상담은 금속·기계,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에서 3순위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시간 상담 건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상위 3대 상담유형에 포함되었는데, 대체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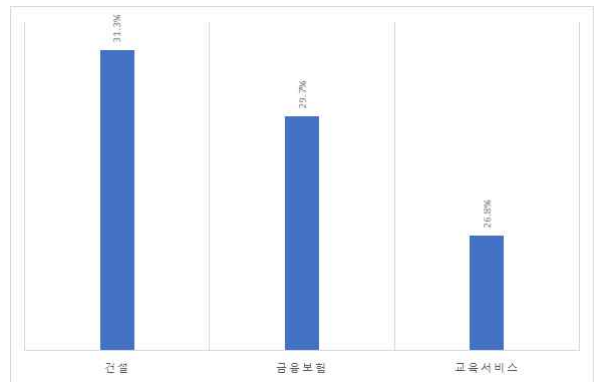
<표 17> 상담 건수 상위 10대 업종의 주요 상담유형

업종	1순위	2순위	3순위
금속,기계	임금(25.7%)	산업재해·노동안전(15.6%)	해고·징계·인사이동(12.3%)
건설업	노동3권(31.3%)	임금(24.3%)	권리구제 등 절차(10.8%) 산업재해·노동안전(1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임금(19.8%)	노동3권(15.9%)	노동시간(13.1%)
금융 및 보험	노동3권(29.7%)	임금(8.2%)	산업재해·노동안전(7.3%)
운수업	임금(27.8%)	노동3권(24.2%)	노동시간(12.1%)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임금(22.2%)	노동시간(14.1%)	해고·징계·인사이동(12.5%)
교육서비스	노동3권(26.8%)	임금(16.2%)	해고·징계·인사이동(13.1%)
화학섬유	임금(29.0%)	해고·징계·인사이동(16.1%)	권리구제 등 절차(12.9%)
도매 및 소매업	임금(27.0%)	해고·징계·인사이동(14.2%)	노동시간(15.2%)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32.1%)	해고·징계·인사이동(14.4%)	4대보험(14.4%)

[그림 9] 임금 1순위 업종



[그림 10] 노동3권 1순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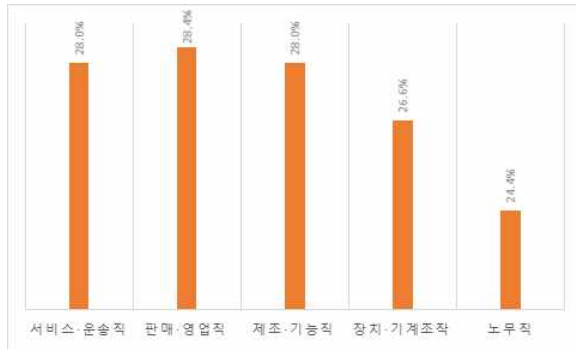
(3) 직종별 상담유형

직종별로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관리직·전문직·사무직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종의 경우 제1순위 상담 유형은 해고·징계·인사이동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조건이 낮은 서비스·운송직, 판매·영업직, 제조·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노무직 등은 임금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모든 직종에서 해고·징계·인사이동 상담은 상위 3대 유형에 속했는데, 이는 직종에 상관없이 고용불안은 주요 현안임을 보여준다. 셋째, 노동3권 상담이 상위 3대 유형에 포함된 직종은 장치·기계조작과 노무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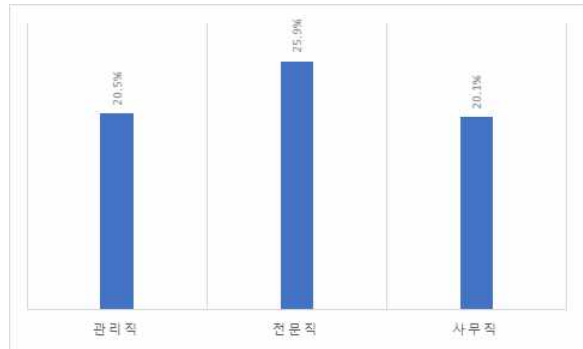
<표 18> 직종별 상위 3대 상담유형

직종	1순위	2순위	3순위
관리직	해고·징계·인사이동(20.5%)	임금(20.5%)	산업재해·노동안전(15.4%)
전문직	해고·징계·인사이동(25.9%)	임금(16.0%)	권리구제 등 절차(11.1%)
사무직	해고·징계·인사이동(20.1%)	임금(16.2%)	권리구제 등 절차(12.4%)
서비스·운송직	임금(28.0%)	해고·징계·인사이동(10.8%)	권리구제 등 절차(10.7%)
판매·영업직	임금(28.4%)	해고·징계·인사이동(18.1%)	4대 보험(10.3%)
제조·기능직	임금(28.0%)	산업재해·노동안전(13.5%)	권리구제 등 절차(10.4%)
장치·기계조작	임금(26.6%)	해고·징계·인사이동(13.8%)	노동3권(11.7%)
노무직	임금(24.4%)	권리구제 등 절차(13.2%)	노동3권(11.0%)

[그림 11] 임금 1순위 직종 현황



[그림 12] 해고·징계·인사이동 1순위 직종



(4) 고용형태별 상담유형

고용형태별로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제1·2순위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금 → 해고·징계·인사이동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3순위의 경우, 정규직은 권리구제 등 절차와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이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은 4대 보험 상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열악한 비정규직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고용형태별 상위 3대 상담유형

고용형태	1순위	2순위	3순위
정규직	임금(24.8%)	해고·징계·인사이동(13.8%)	권리구제 등 절차(10.4%) 산업재해·노동안전(10.4%)
비정규직 ¹⁾	임금(24.7%)	해고·징계·인사이동(11.2%)	4대 보험(10.0%)

주 1)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재택, 가내, 촉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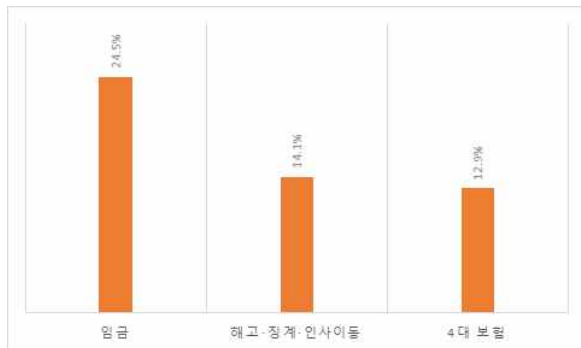
(5) 성별 상담유형

성별로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성별에 상관 없이 비중이 높은 제1순위 상담유형은 임금으로 동일했는데, 2순위의 경우 여성은 해고·징계·인사, 남성은 노동3권 상담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3순위 상담유형은 4대 보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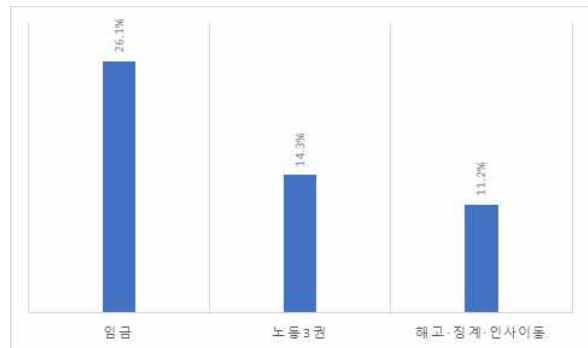
<표 20> 성별 상위 3대 상담유형

성별	1순위	2순위	3순위
여성	임금(24.5%)	해고·징계·인사이동(14.1%)	4대 보험(12.9%)
남성	임금(26.1%)	노동3권(14.3%)	해고·징계·인사이동(11.2%)

[그림 13] 여성 피상담자 상위 3대 상담유형



[그림 14] 남성 피상담자 상위 3대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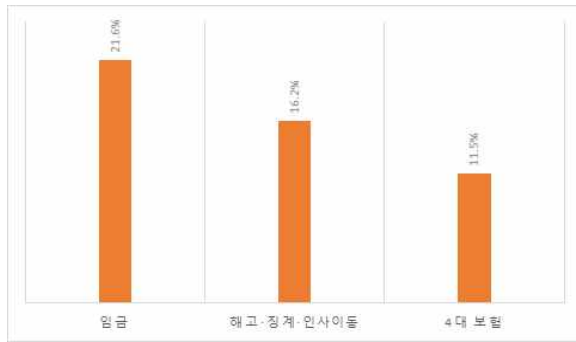
(6) 연령별 상담유형

연령별 상위 3대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상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었다. 표본 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임금 상담 비중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25.1%), 20대(21.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순위의 경우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해고·징계·인사이동, 40대와 50대는 노동3권, 60대 이상에서는 4대 보험 상담이 차지했다. 셋째, 4대 보험 상담은 60대 이상(2순위)과 2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해당 연령대 노동자 노동조건이 기본적인 사회보험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동 3권 상담은 주된 연령층인 40~50대(2순위)와 3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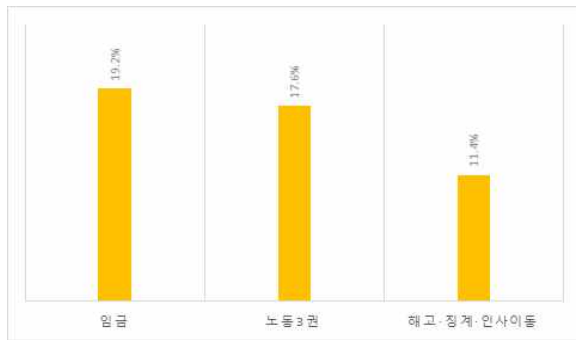
<표 21> 연령별 상위 3대 상담유형

연령	1순위	2순위	3순위
10대 ²⁾	임금(40%) 근로계약(40%)	.	노동시간(20%)
20대	임금(21.6%)	해고·징계·인사이동(16.2%)	4대보험(11.5%)
30대	임금(21.0%)	해고·징계·인사이동(13.5%)	노동3권(12.9%)
40대	임금(19.2%)	노동3권(17.6%)	해고·징계·인사이동(11.4%) 산업재해·노동안전(11.4%)
50대	임금(25.1%)	노동3권(13.0%)	해고·징계·인사이동(10.9%)
60대 이상	임금(30.3%)	4대보험(12.8%)	권리구제 등 절차(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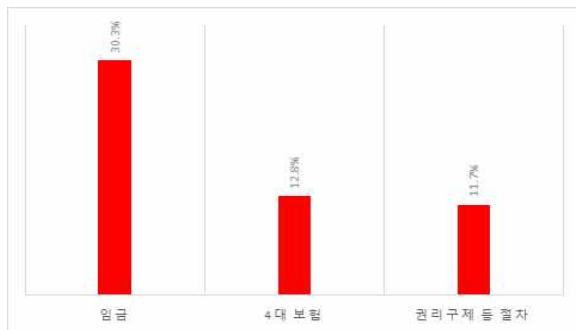
[그림 15] 20대 상위 3대 상담유형



[그림 17] 40대 상위 3대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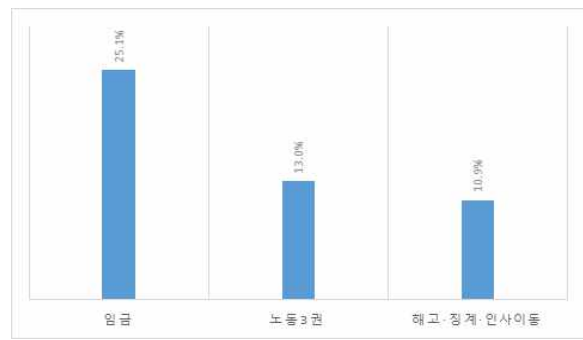
[그림 19] 60대 이상 상위 3대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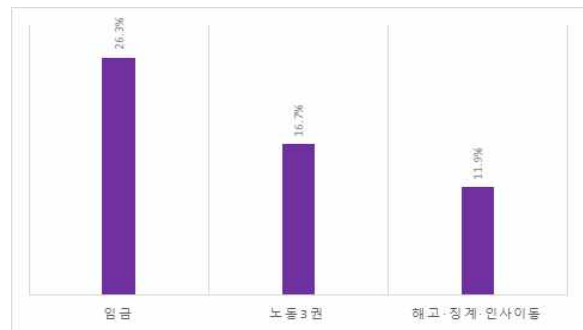
[그림 16] 30대 상위 3대 상담유형



[그림 18] 50대 상위 3대 상담유형



[그림 20] 전체 연령 상위 3대 상담유형



(7) 노조유무별 상담유형

노조유무별 상위 3대 상담유형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무노조 사업장 소속 피상담자는 주로 임금(26.2%) → 권리구제 등 절차(12.2%) → 4대 보험(12.9%)인 반면,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동3권(21.1%) → 임금(19.4%) → 해고·징계·인사이동(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노조유무별 상위 3대 상담유형

노동조합	1순위	2순위	3순위
없음	임금(26.2%)	권리구제 등 절차(12.2%)	4대 보험(12.9%)
있음	노동3권(21.1%)	임금(19.4%)	해고·징계·인사이동(11.5%)

5. 주요 세부 상담유형별 특징

1) 노조가입(설립)

노조가입(설립)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는 581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노조가입(설립) 상담을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연령, 주요 업종, 고용형태, 노조유무, 성별 등 6가지 요인별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23> 사업체 규모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사업체 규모	상담 건수		비중		노조 조직률 ³⁾
5인 미만	10	67	5.1%	34.4%	0.1%
5~9인	16		8.2%		
10~29인	41		21.0%		
30~99인	49		25.1%		1.7%
100~299인	35		17.9%		8.9%
300인 이상	44		22.6%		54.8%
합계 ¹⁾	195		100.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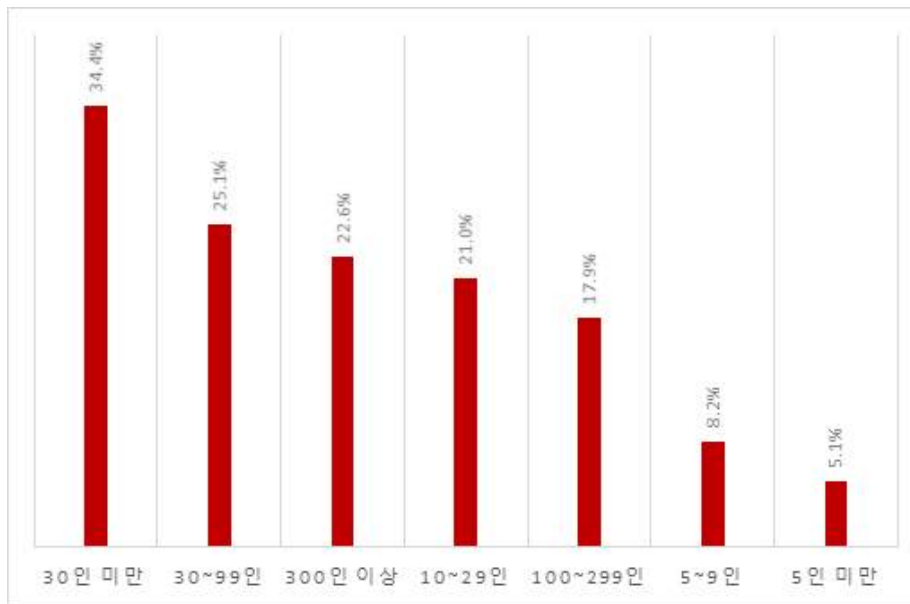
주 1) 노조가입(설립) 상담 중 사업체 규모에 대해 응답한 피상담자 합계를 의미함

2) 10대의 경우 상담 건수가 5건 뿐이어서 상담유형별 비중은 큰 의미가 없음

3) 201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른 노조 조직률

첫째,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피상담자 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99인(25.1%), 300인 이상(22.6%), 100~299인(1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피상담자 비중이 60%에 달했다.

[그림 21] 사업체 규모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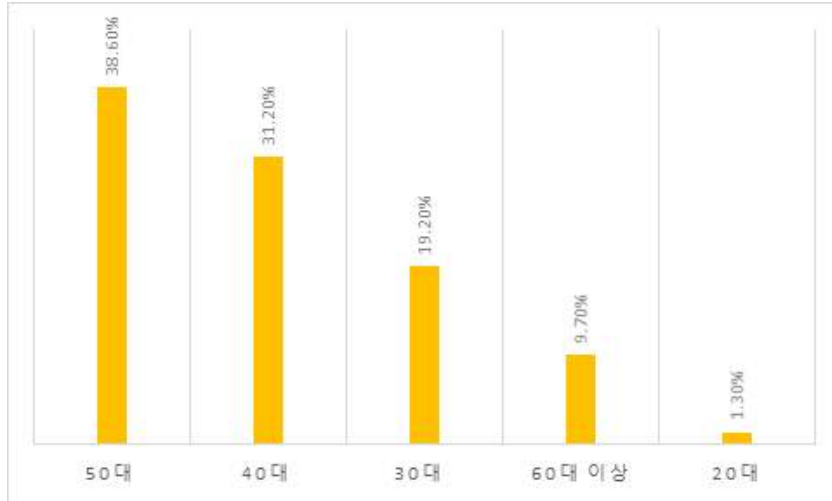


둘째,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1.2%), 30대(19.2%), 60대 이상(9.7%), 20대(1.3%)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 상담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표 25> 연령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연령	상담 건수	비중
10대	0	0%
20대	5	1.3%
30대	73	19.2%
40대	119	31.2%
50대	147	38.6%
60대 이상	37	9.7%
합계	381	100.0%

[그림 34] 연령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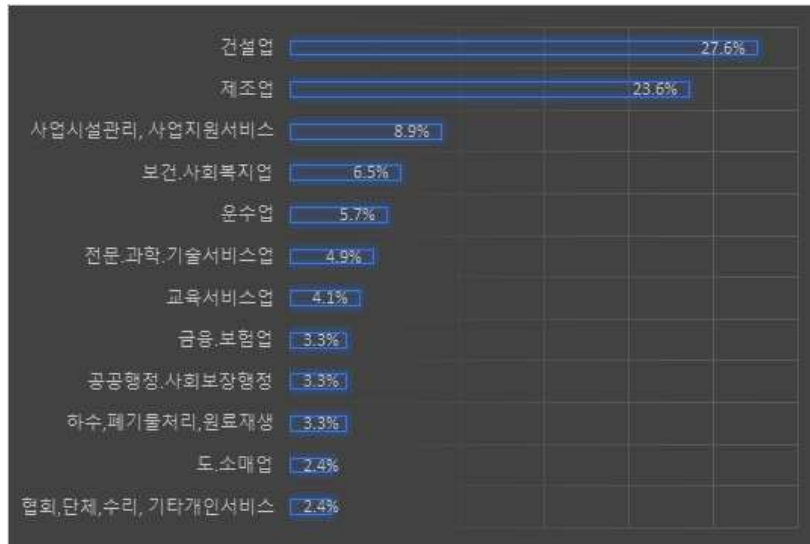
셋째, 노조가입(설립) 상담이 많은 상위 업종은 건설업(27.6%)과 제조업(23.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8.9%), 보건·사회복지업(6.5%), 운수업(5.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7> 노조가입(설립) 상담유형 상위 12대 업종

업종	상담 건수	비중
건설업	34	27.6%
제조업 ¹⁾	29	2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11	8.9%
보건·사회복지업	8	6.5%
운수업	7	5.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	4.9%
교육서비스업	5	4.1%
금융·보험업	4	3.3%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4	3.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4	3.3%
도·소매업	3	2.4%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	3	2.4%
그 외 업종	5	4.1%
합계	123	100%

주 1) 제조업은 식품, 화학섬유, 금속기계, 제약, 자동차를 합한 값임

[그림 35] 노조가입(설립) 상담유형 상위 12대 업종



넷째,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설립) 상담이 52.8%로 정규직(46.5%)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고용형태	상담 건수	비중
정규직	125	46.5%
비정규직 ¹⁾	142	52.8%
기타	2	0.7%
합계	2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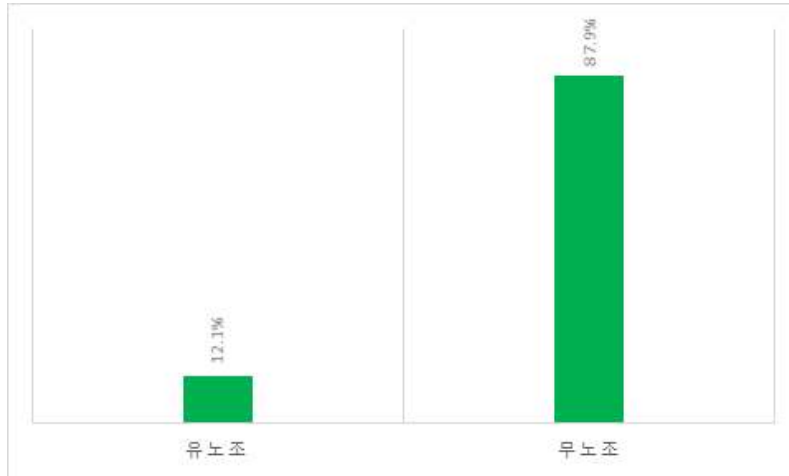
주 1)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제택, 가내, 촉탁 등.

다섯째, 노조가입(설립) 상담은 당연하겠지만 무노조 사업장 비중이 87.9%로 압도적이며, 유노조 사업장은 12.1%로 나타났다.

<표 30> 노조유무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노동조합	상담 건수	비중
있음	20	12.1%
없음	145	87.9%
합계	1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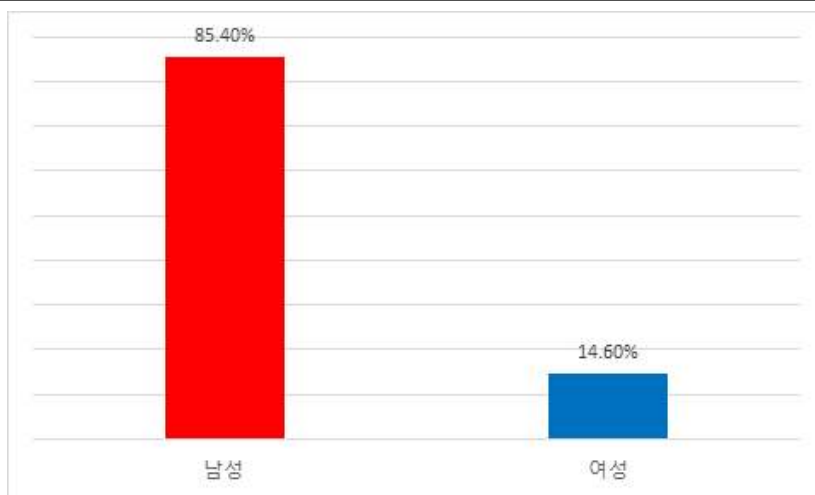
[그림 36] 노조유무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여섯째, 성별로 살펴보면, 노조가입(설립)에 대한 남성 노동자 비중이 85.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비중은 14.6%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 노조가입(설립) 상담 현황

성별	상담 건수	비중
남성	434	85.4%
여성	74	14.6%
합계	508	100.0%



2) 임금체불·최저임금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는 725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을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연령, 주요 업종, 고용형태, 노조유무, 성별 등 6가지 요인별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비중이 7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30~99인(16.2%), 100~299인(4.9%), 300인 이상(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비중으로 계산하면 91.7%로 임금체불·최저임금 피상담자 10명 중 9명 이상은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작은사업장 및 중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사한다.

<표 33> 사업체 규모별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

사업체 규모	상담 건수	비중
5인 미만	69	26.0%
5~9인	70	26.4%
10~29인	61	23.0%
30~99인	43	16.2%
100~299인	13	4.9%
300인 이상	9	3.4%
합계 ¹⁾	2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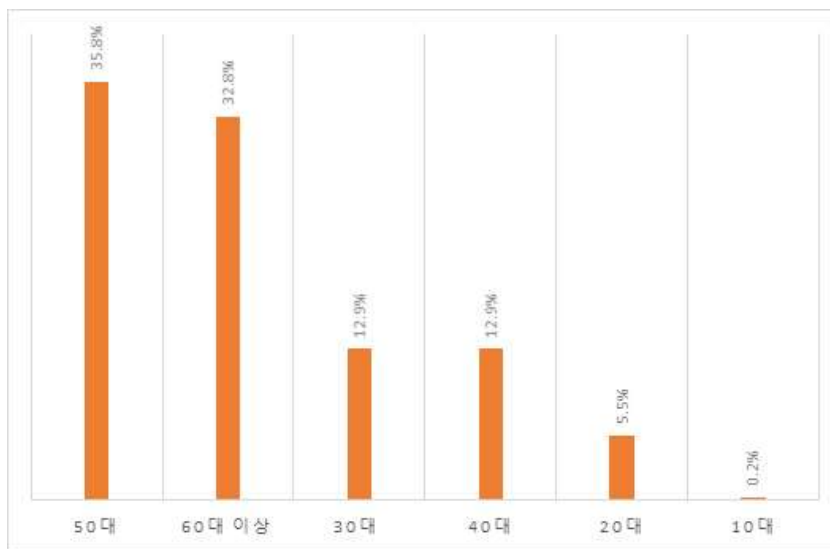


주 1)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중 사업체 규모에 대해 응답한 피상담자 합계를 의미함

둘째,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5.8%)와 60대 이상(32.8%) 상담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12.9%로 같았고, 20대는 5.5%로 나타났다. 고령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4> 연령별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

연령	상담 건수	비중
10대	1	0.2%
20대	25	5.5%
30대	59	12.9%
40대	59	12.9%
50대	164	35.8%
60대 이상	150	32.8%
합계	458	100.0%



셋째,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비중이 높은 상위 업종은 제조업(29.9%), 건설업(14.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9.8%), 숙박·음식업(8.9%), 보건·사회복지업(8.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5>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유형 상위 10대 업종

업종	상담 건수	비중
제조 ¹⁾	67	29.9%
건설	32	14.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22	9.8%
숙박·음식업	20	8.9%
보건·사회복지업	19	8.5%
도소매업	14	6.3%
운수업	13	5.8%
교육서비스	8	3.6%
전기·가스·수도	6	2.7%
금융·보험업	5	2.2%
그 외 업종	18	8.0%
합계	224	100.0%

주 1) 제조업은 식품, 화학섬유, 금속기계, 제약, 자동차를 포함한 값임

넷째,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상담 비중이 50.9%로 비정규직(46.4%)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등의 문제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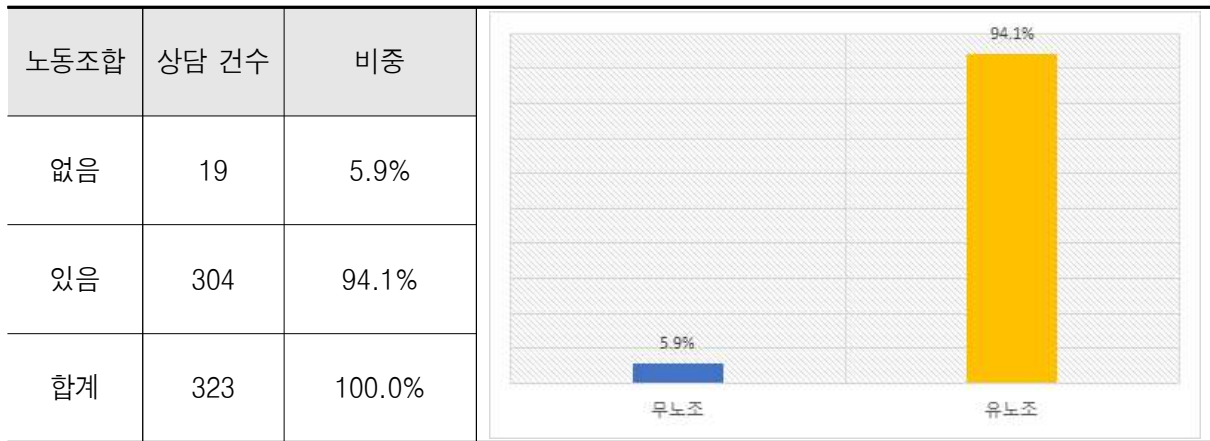
<표 36> 고용형태별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

고용형태	상담 건수	비중
정규직	174	46.4%
비정규직 ¹⁾	191	50.9%
기타	10	2.7%
합계	375	100.0%

주 1)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제택, 가내, 촉탁, 초단시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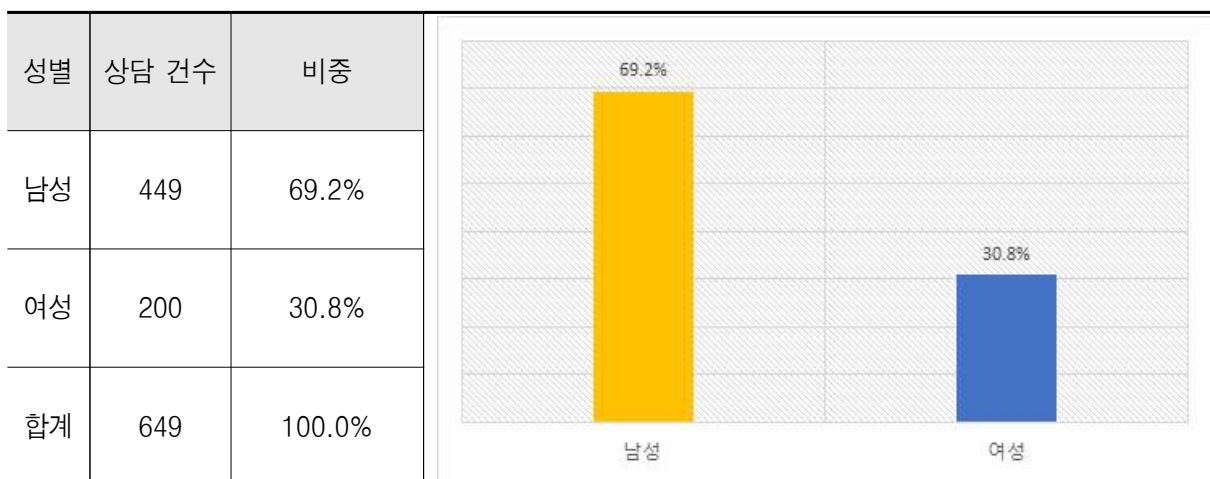
다섯째,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은 무노조 사업장 비중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유노조 사업장은 5.9%에 불과했다.

<표 37> 노조유무별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



여섯째, 성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최저임금 관련 남성 노동자 상담 비중이 69.2%, 여성 비중은 30.8%로 나타났다.

<표 38> 성별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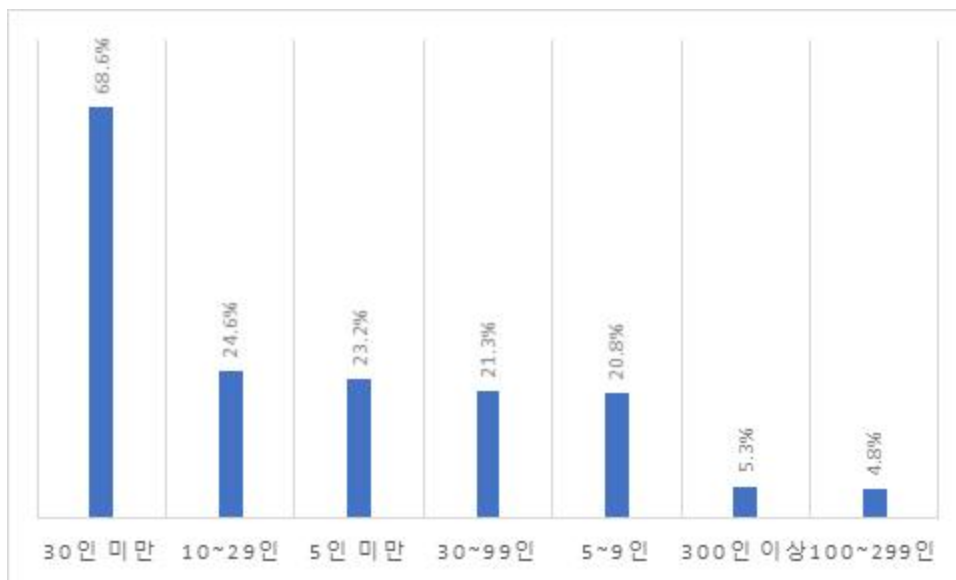
3)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관한 전체 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을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연령, 주요 업종, 고용형태, 노조유무, 성별 등 6가지 요인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비중이 6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30~99인(21.3%), 100~299인(4.8%), 300인 이상(5.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9> 사업체 규모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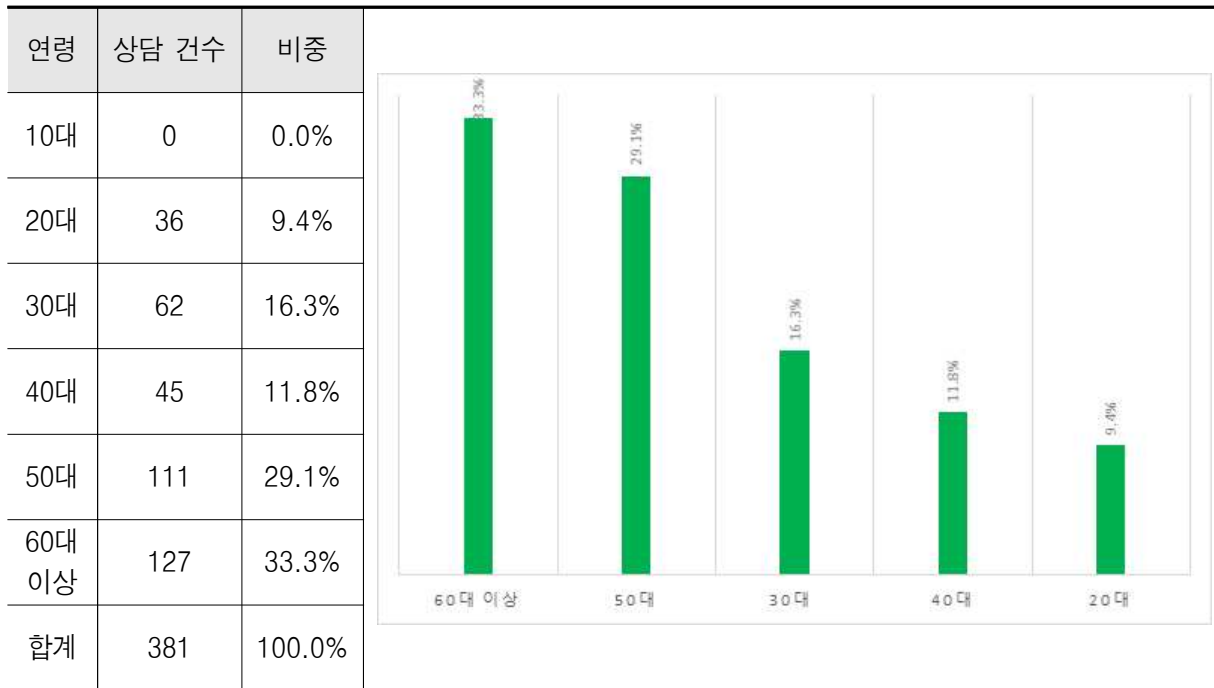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	상담 건수		비중	
5인 미만	48	142	23.2%	68.6%
5~9인	43		20.8%	
10~29인	51		24.6%	
30~99인	44		21.3%	
100~299인	10		4.8%	
300인 이상	11		5.3%	
합계 ¹⁾	207		100.0%	



주 1)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중 사업체 규모에 대해 응답한 피상담자 합계를 의미함

둘째,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명 중 1명(33.3%)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29.1%), 30대(16.3%), 40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6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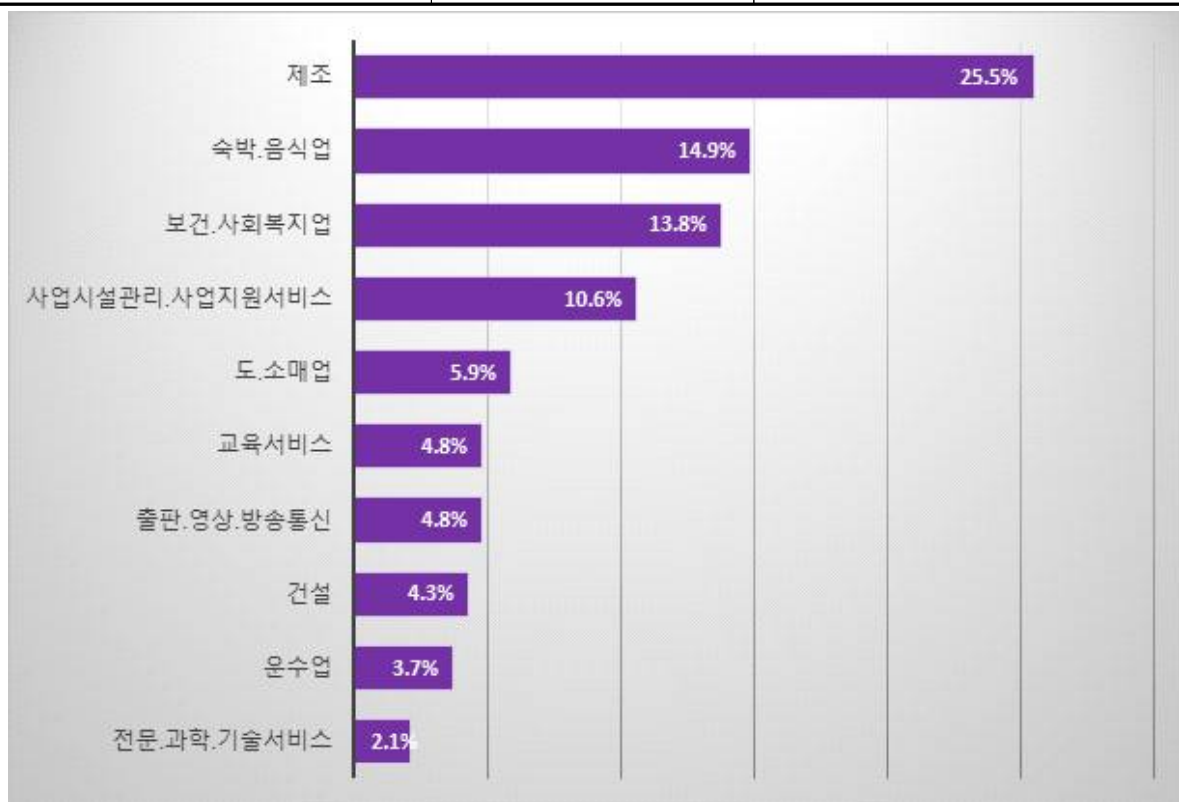
<표 40> 연령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



셋째,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비중이 높은 상위 업종은 제조업(25.5%), 숙박·음식업(14.9%), 보건·사회복지업(13.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10.6%), 도·소매업(5.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상위 10대 업종

업종	상담 건수	비중
제조 ¹⁾	48	25.5%
숙박·음식업	28	14.9%
보건·사회복지업	26	13.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20	10.6%
도·소매업	11	5.9%
교육서비스	9	4.8%
출판·영상·방송통신	9	4.8%
건설	8	4.3%
운수업	7	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	2.1%
그 외 업종	18	9.6%
합계	188	100.0%



주 1) 제조업은 식품, 화학섬유, 금속기계, 제약, 자동차를 포함한 값임

넷째,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상담 비중이 51.1%로 정규직(47.6%)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4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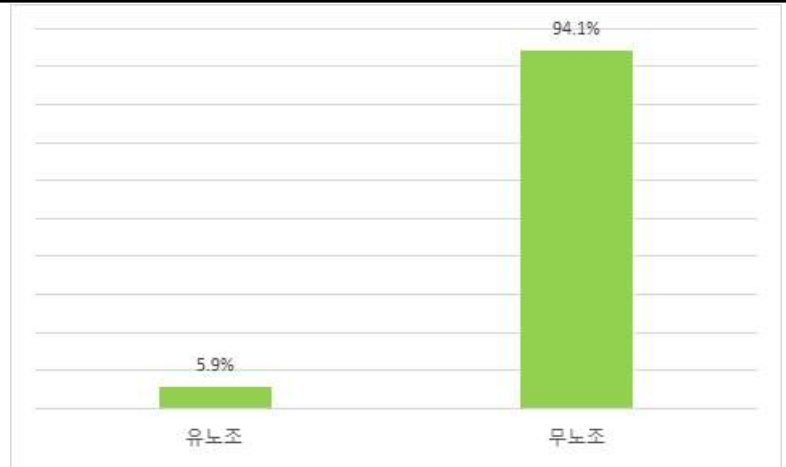
고용형태	상담 건수	비중
정규직	152	47.6%
비정규직 ¹⁾	163	51.1%
기타	4	1.3%
합계	319	100.0%

주 1)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재택, 가내, 촉탁, 초단시간 등.

다섯째, 노조유무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은 무노조 사업장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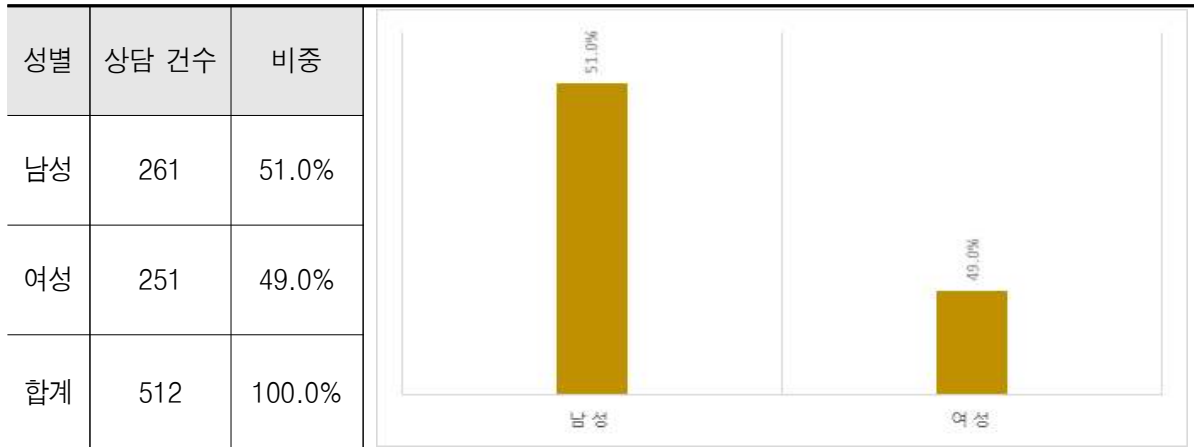
<표 43> 노조유무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

노동조합	상담 건수	비중
있음	16	5.9%
없음	257	94.1%
합계	273	100.0%



여섯째,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상담의 성별 비중은 남성 51.0%, 여성 49.0%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피상담자 성별 비중이 남성 67.4%, 여성 32.6%임을 고려하면, 여성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4> 성별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현황



6. 30인 미만 사업체 상담 특징

1) 사업체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응답한 전체 피상담자 규모는 1,008명이며, 사업체 규모 응답자 중 48.7%를 차지한다. 30인 미만 사업체만 따로 떼서 비중을 살펴보면, 5인 미만 24.8%, 5~9인 32.9%, 10~29인 42.3%로 10~29인 사업장의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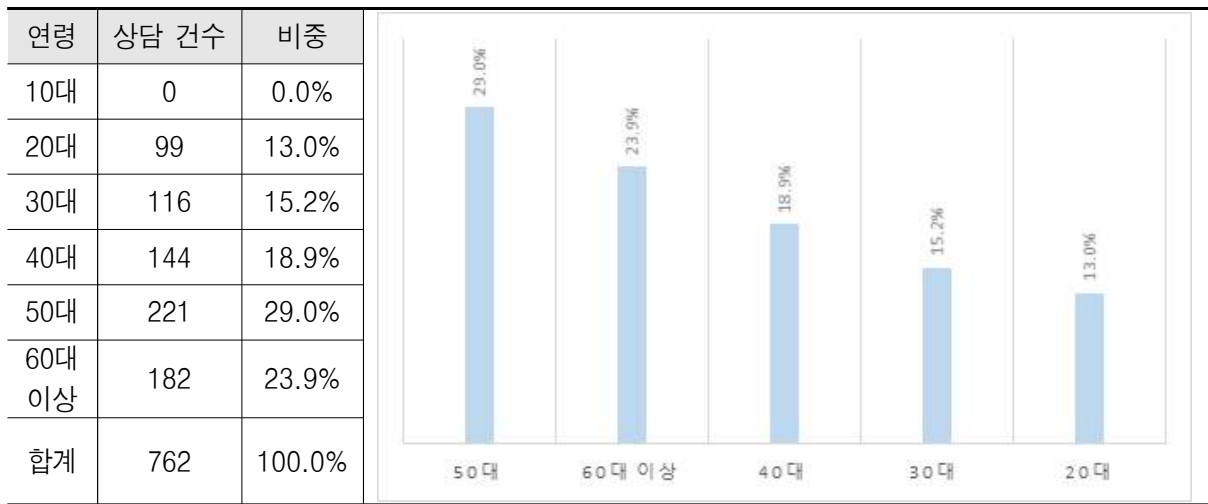
<표 45> 사업체 규모별 분포

사업장 규모	피상담자 수	비율
5인 미만	250	24.8%
5~9인	332	32.9%
10~29인	426	42.3%
합계	1,008	100.0%

2) 연령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피상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50대 비중이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대 이상 23.9%, 40대 18.9%, 30대 15.2%, 20대 13.0%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표 46>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연령별 분포



3) 성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중 남성이 61.1%, 여성이 38.9%로 나타났다. 전체 피상담자 성별 분포가 남성 67.4%, 여성 32.6%임을 고려하면,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분포도 전체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7>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성별 분포

성별	상담 건수	비중
남성	595	61.1%
여성	379	38.9%
합계	974	100.0%

4) 고용형태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는 정규직 54.0%, 비정규직 43.3%로 나타났다. 전체 피상담자 분포가 정규직 48.0%, 비정규직 49.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8>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고용형태별 분포

고용형태	상담 건수	비중
정규직	416	54.0%
비정규직 ¹⁾	334	43.3%
기타	21	2.7%
합계	771	100.0%

주 1)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일용직, 제택, 가내, 촉탁, 초단시간 등.

5) 노조유무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노조유무별 분포는 무노조 사업장 97.5%, 유노조 사업장 2.5%로 나타났다. 전체 피상담자 비중이 무노조 사업장 85%, 유노조 사업장 15%임을 고려하면,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경우 무노조 사업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49>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노조유무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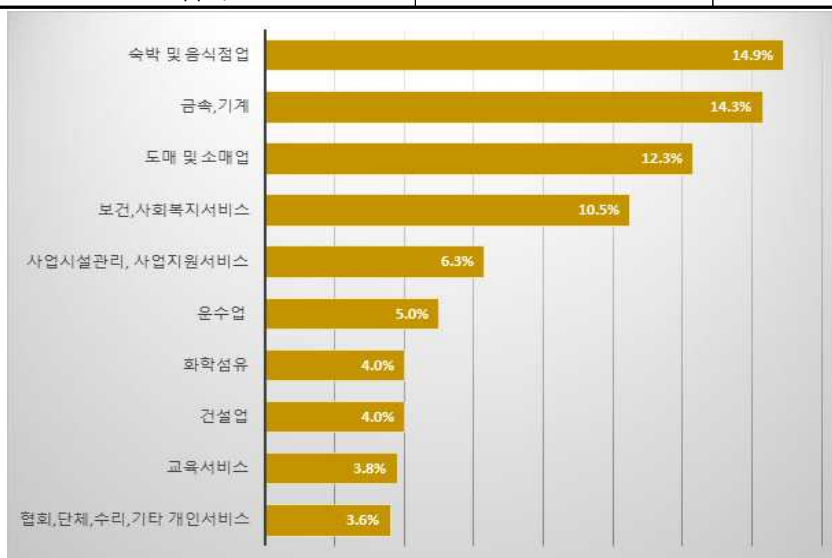
노동조합	상담 건수	비중
있음	15	2.5%
없음	584	97.5%
합계	599	100.0%

6) 업종별 분포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이 1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속기계(14.3%), 도·소매업(1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5%),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0>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업종별 분포

업종	피상담자 수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75	14.9%
금속,기계	72	14.3%
도매 및 소매업	62	1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3	10.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32	6.3%
운수업	25	5.0%
화학섬유	20	4.0%
건설업	20	4.0%
교육서비스	19	3.8%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	18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6	3.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5	3.0%
식품	12	2.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12	2.4%
농림어업	8	1.6%
전기,가스,수도사업	8	1.6%
금융 및 보험	7	1.4%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6	1.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5	1.0%
부동산 및 임대	5	1.0%
자동차	2	0.4%
광업	1	0.2%
제약	1	0.2%
기타	11	2.2%
합계	5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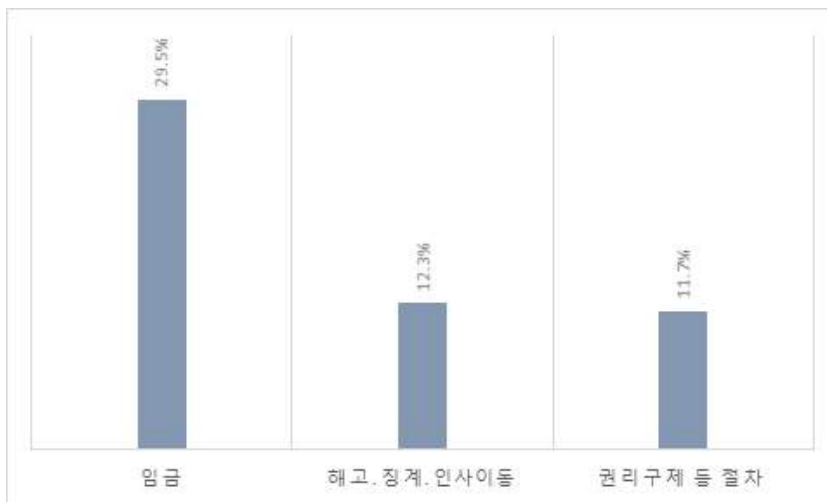
7) 상담유형 특징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상위 5대 상담유형은 임금(29.5%), 해고·징계·인사이동(12.3%), 권리구제 등 절차(11.7%), 노동시간·휴일·휴가(11.0%), 4대 보험(9.8%) 순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체 상담유형과 비교하면, 노동 3권 상담이 상위 5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대신 권리구제 등 절차, 노동시간·휴일·휴가, 4대 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자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51>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 상담유형 분포

상담유형	상담 건수	비중
임금	494	29.5%
해고·징계·인사이동	207	12.3%
권리구제 등 절차	197	11.7%
노동시간·휴일·휴가	184	11.0%
4대보험	164	9.8%
근로계약취업규칙	128	7.6%
산업재해·노동안전	119	7.1%
노동3권	87	5.2%
비정규직	18	1.1%
성평등	10	0.6%
기타	69	4.1%
합계	1,677	100.0%

[그림 50] 30인 미만 사업체 상위 3대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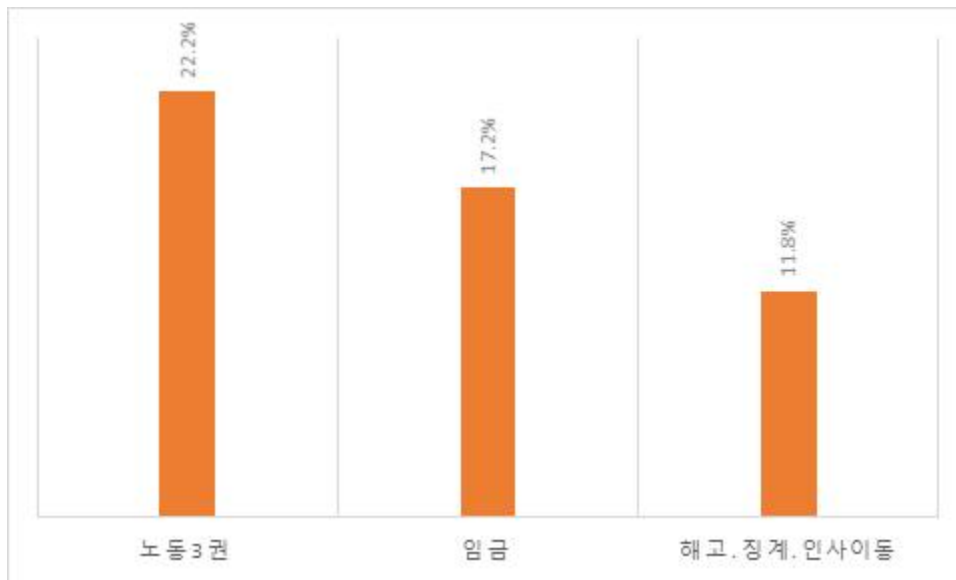


한편 30인 이상 사업체 피상담자의 상위 5대 상담유형은 노동 3권(22.2%), 임금(17.2%), 해고·징계·인사이드(11.8%), 노동시간·휴일·휴가(11.1%), 산업재해·노동안전(9.0%) 등으로 나타났다.

<표 52> 30인 이상 사업체 피상담자 상담유형 분포

상담유형	상담 건수	비중
노동3권	341	22.2%
임금	264	17.2%
해고·징계·인사이드	181	11.8%
노동시간·휴일·휴가	170	11.1%
산업재해·노동안전	138	9.0%
절차	94	6.1%
근로계약취업규칙	92	6.0%
4대 보험	72	4.7%
비정규직	41	2.7%
성평등	17	1.1%
기타	125	8.1%
합계	1535	100.0%

[그림 51] 30인 이상 사업체 상위 3대 상담유형



7.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보고서는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장 실태, 동향,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전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자료 중 2021년 3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입력된 5,791건의 상담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형태

상담형태별로 살펴보면, 전화 상담 비율이 7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1577-2260 대표 전화 상담이 2020년보다 16.3%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 비중이 48.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작년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담 비중은 비슷하고,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56.5%)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기계, 건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직종은 서비스·운송직과 노무직이 절반 이상(54.6%)으로 나타났다.

상위 3대 상담유형

상위 3대 상담유형은 임금(26.3%), 노동3권(16.7%), 해고·징계·인사이동(11.9%) 등으로 나타났다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이 4.9%포인트 줄어들고, 노동조합 가입·설립 등 노동3권 상담이 6.3%포인트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1순위인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동3권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3권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 노사자치를 통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제1·2순위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 해고·징계·인사이동 순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3순위의 경우, 정규직은 권리구제 등 절차와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이 차지했으며, 비정규직은 4대 보험 상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열악한 비정규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에 상관없이 제1순위 상담유형은 임금으로 나타났는데, 2순위의 경우 여성은 해고·징계·인사, 남성은 노동3권 상담으로 나타났다. 여성 3순위 상담유형은 4대 보험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연령별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상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임금 상담 비중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해고·징계·인사, 40대와 50대는 노동3권, 60대 이상에서는 4대 보험 상담이 차지했다. 4대 보험 상담은 60대 이상(2순위)과 2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해당 연령대 노동자 노동조건이 기본적인 사회보험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 3권 상담은 주된 연령층인 40~50대(2순위)와 30대(3순위)에서 상위 3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설립), 임금체불·최저임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분석

노조가입(설립)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피상담자 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8.6%로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건설업(27.6%)과 제조업(23.6%)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최저임금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비중이 75.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5.8%)와 60대 이상(32.8%) 상담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 제조업(29.9%)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 상담 비중이 6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명 중 1명(33.3%)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5.5%)이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상담 특징

30인 미만 사업체만 따로 떼서 규모별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24.8%, 5~9인 32.9%, 10~29인 42.3%로 10~29인 사업장의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상담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비중이 2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대 이상 23.9%, 40대 18.9%, 30대 15.2%, 20대 13.0%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54.0%, 비정규직 43.3%로 정규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 사업장 97.5%, 유노조 사업장 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체 피상담자의 상위 5대 상담유형은 임금(29.5%), 해고·징계·인사이동(12.3%), 권리구제 등 절차(11.7%), 노동시간·휴일·휴가(11.0%), 4대 보험(9.8%) 순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체 상담유형과 비교하면, 노동3권 상담이 상위 5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대신 권리구제 등 절차, 노동시간·휴일·휴가, 4대 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자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시사점

첫째, 2021년 상담은 2020년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피상담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노동상담 사업이 본래 취지인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 노동자 권리 및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화 상담 중 대표전화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 역시 민주노총의 상담사업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만 인터넷 상담 형태가 여전히 저조한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60대 이상 상담 비중이 50대 다음으로 높고, 주요 상담유형이 임금, 4대 보험,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넷째, 노조가입(설립) 상담을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하면, 3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사업장 전략조직화 사업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특히 10~29인 사업

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20대(1.3%)와 60대 이상(9.7%)의 비중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금체불·최저임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상담 등에서 30인 미만 사업체와 6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작은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조유무에 따른 상담 비중은 무노조 사업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법·제도의 이행을 강제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